

2023 순전한 믿음 8

모든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은 옛 자아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2-3]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 창조 직전에 일어나는 일

[창세기 1:2-3]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사건을 보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 혼돈, 공허, 흑암은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내 생각으로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 뒤에 갑자기 말씀으로 빛을 선포하신다. 그러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만들어진다. 놀라운 순간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만족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뀐다.

'창조 직전의 상황'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언제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창조 직전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임박했다는 사인이다.

2. 새 일의 법칙

1) 노아

노아의 때는 절망의 때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 노아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눈에는 노아를 통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노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베드로후서 3:5-7]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12-14]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5~6절 :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언급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물 심판이다.

7절 :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물 심판이 아닌 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12절 : 불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언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물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불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언도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노아의 때처럼 13절에 있다.

13절 :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판 뒤에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다.

2) 십자가

십자가 사건도 이와 같다. 십자가는 옛 자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망이 언도된 인생이라는 말이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인생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 사망은 심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심판이 언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 보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

[사도행전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은 자신들에게 언도된 심판을 보는 순간 죄 사함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사망이 언도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3. 혼돈 중에 가져야 할 믿음

이제 다시 창조의 법칙으로 돌아가자.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이가 짙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다. 바로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혼돈의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일어날 길을, 돌파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 놀라운 순간이며 경이로운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겨 나갈 방법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다. 짙은 상황에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 우리를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구원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인생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한다. 혼돈 속에 있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다. 은혜다. 바로 그 속에서 새 일이 시작된다.

모든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은 옛 자아로부터 시작된다. 은혜의 자리로 가면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심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게 되는 지름길이다. 나는 심판이 언도된 존재다.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나의 자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 다시 사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자.